

LG이노텍, 모듈 화질 경쟁력 강화

카메라 모듈기술 화소에서 화질로 ... 선명도 향상 신기술 개발 박차

LG이노텍(대표 이웅범)이 카메라 모듈의 화질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스마트폰 카메라 기술력의 척도가 화소 수에서 화질로 초점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LG이노텍은 2014년 5월 출시된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3>에 카메라 화소와 모듈 크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선명도를 높이는 기술을 적용했다.

두께가 5.7mm로 매우 얇고, 1300만화소 광학식 손떨림 보정(OIS) 기능과 듀얼 LED(Light Emitting Diode) 플래시, 레이저 오토포커스 기능을 추가해 화질을 향상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OIS는 카메라가 움직이면 렌즈도 함께 미세하게 움직여 초점을 맞추는 기능으로 DSLR 카메라 등 전문가용 디지털 카메라에 쓰이는 광학기술이다.

듀얼LED 플래시는 특성이 다른 2개의 LED를 사용한 고성능 발광장치로 빛이 부족한 환경에서도 자연스럽게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광색 LED는 색온도가 6000켈빈 수준으로 형광등과 비슷한 색을 내며 전구색 LED는 2600켈빈으로 백열등과 유사한 밝기를 나타낸다.

레이저 오토포커스는 레이저 빔으로 피사체 데이터를 수집해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주변에 빛이 부족하더라도 초점을 빠르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다.

LG이노텍 관계자는 “앞으로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자동차용 카메라 모듈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적인 제품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4/06/25>